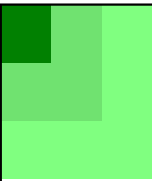

**‘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
체계 구축’ 사업 중간평가 출장결과 보고**
[모잠비크, 2010. 8. 9 ~ 8.16]

2010. 8.

**한국농촌경제연구원
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**



- 목 차 -

1. 출장 개요	3
2. 주요 면담내용	3
3. 관찰 및 평가	8
4. 향후 조치계획	9
《참고 자료》	
출장 일정	11

□ 출장기간 : 2010. 8. 9(월) ~ 8. 16(월)

□ 출 장 국 : 모잠비크

□ 출 장 자 : 이대섭 부연구위원

□ 출장목적

- ‘모잠비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보급체계 구축’ 사업 중간 점검·평가
 - 모잠비크 대상 기획사업 발굴
 - 모잠비크 협력사업 수요 조사
 - 현지 자료 수집

가. 농업부 기술지원국

- 방문 일자: 8월11일 (수)
- 면담 참가자: 기술보급국장(Mr. José António Gaspar), 기술 보급과장(Mr. Inácio Nhandale), 한국전략개발연구소(KDS) 유명호 실장, 손성애 기획관
- 주요 면담 내용
 - 2009년 수행한 1차년도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, 모잠비크에 적용될 수 있는 농업기술의 전수, 농업 생산성 향상

측면에서 특히 긍정적임

- 농업기술센터의 궁극적인 ownership이 모잠비크 정부가 되도록 사업 구성을 요청, 차후에 센터 운영은 outsourcing하는 방향 고려
 - 부지 선정 역시 모잠비크 농업부 주도가 되기를 요청
 - 본 사업은 한국과 모잠비크 정부간 사업으로 추진될 것임
 - 센터의 ownership은 정부에게로 돌아갈 것이나,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가 지속적,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
 - 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농림부 고위층에 전달하고, 승인이 되면 2010년 내에 사업을 착수 Preliminary study team의 모잠비크 파견,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간 사업내용에 관한 협의 진행, 모잠비크 농업부 및 우리측 농림수산식품부 간의 MOU 체결 검토
- ※사업 구성 과정에서 모잠비크 측에서는 예산 관련 재무부, 절차 관련 외교부의 협조가 필요함
- 사업 구성 관련, 초청연수 및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포함할 계획

나. 농업부 국제협력국

○ 방문 일자: 8월11일 (수)

○ 면담 참가자: 기술보급국장(Mr. José António Gaspar), 국제협력국장(Mr. João Simão Nyaima), 기술보급과장(Mr. Inácio Nhancale), KDS 유명호실장, 손성애기획관

○ 주요 면담 내용

-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의 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큼
- 사업개발 절차 중 MOU 서명을 위해서는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의 승인 필요, 모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농업부와 협의할 수 있으나, 외무부 승인을 득해야 함
- 양국 대사관(한국: 짐바브웨, 모잠비크: 일본 주재)의 공식채널을 통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됨
-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협의 사항은 양국 농업부간 진행이 되며 R/D로 처리할 수 있음 (모잠비크 국제협력국)
- 모잠비크 농업개발 관련 주요 이슈 : 영세농(small scale farms)이 성장 지원이며, 영세농의 생산성 증대, 단위 영세농의 경작지 확대 (arable land - 국토의 약 45%, arable land in use - 10%), 금융지원 등
- 현재 영세농에 대한 기술보급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, 열악한 실정

○ 협력 및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토지 이용방식

- 일반적으로 토지는 국가 소유(state-owned)이며, 50년 이상의 장기 사용권 부여 및 계약만기후 재계약 가능
- 협력사업이 공익의 목적이면 무상지원,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임대료는 경미한 정도(\$1-\$2/ha/년)
- 투자관련 토지 이슈 담당 : CPI (investment promotion center)

- 토지 이용권 획득 절차는 정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안정적인
- 모잠비크 농업관련 국내정책중 우선 추진되는 정책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
- 소규모 영농에서 대규모 영농으로 전환을 시도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 의존하는 추세며 이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강조
- 모잠비크측은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(연 6%-7% 성장)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생산 기반시설, 영농기술, 수확후 관리 기술, 수출기반이 열악하여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국을 이해하고 농업기술 등 지원을 기대

다. 외교부(Ministry of Foreign Affair)

- 방문 일자: 8월11일 (목)
- 면담 참가자: 외교부 아시아 오세아니아국장(Ms. Maria Gustava), 농업부 기술보급과장(Mr. Inácio Nhancale), KDS 유명호실장
- 주요 면담 내용
 - 모잠비크 법제도하에서 양국간 협력사업은 공식적인 외교라인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현재 모잠비크는 협력사업 파트너 국가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공여국의 개발경험을 전수받고자하며, 특히 영농기술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증대를 통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

음.

- 일본의 경우 재정지원 및 기술보급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험실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.
- 중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보급 차원에서는 중국본토의 기술력 및 노동력이 대량 투입되어 모잠비크 노동자들에게는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는 실정임.
- 따라서 한국의 협력사업은 모잠비크 중장기 농업계획(PROAGRI)과 연계하여 지원하길 기대하며, 세부적으로 농민 역량강화, 영농기술보급체계 구축 등의 농업 위주의 프로젝트를 희망함.
- 협력사업 추진절차는 양국간 농업관련 부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양국 외교부에 전달하여 인증받는 형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하지만 주모잠비크 한국대사관 및 주한 모잠비크대사관이 부재하여 주짐바브웨이 한국대사관, 주일 모잠비크대사관을 활용하는 문제가 제기됨.

라. 치사노재단(Chissano Foundation)

○ 방문 일자: 8월11일 (목)

○ 면담 참가자: 재단 이사장(Dr Leonardo Simao, 전 외교부 장관), 농업부 기술보급과장(Mr. Inácio Nhancale)외 3명, KDS 유명호실장, 손성애 기획관

○ 주요 면담 내용

- 현재 한국전략개발연구소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영농기술전수 시범포 부지를 제공하여 협력사업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판단하고 있음.
- 치사노재단은 현재 실질적인 기술보급을 통해 생산, 가공, 무역, 경영 등의 전반적인 농업의 산업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.
-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과대학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농업생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한 상황임.
- 현 정부의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외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어야하며, ODA 유·무상 지원 중 영농기술교육훈련에 집중하여야 된다 판단하고 있음.
- 우리측에 농업부문 협력사업 기회가 주어지면 영농기술보급 체계 구축사업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.
- 또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시 양국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해 민간투자 사업과 연계시키는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효율적인 양국 간 협력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III

관찰 및 평가

- 모잠비크 측은 한국이 전쟁 등 어려움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농업·농촌분야 발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경험 공유 및 지원에 대한 열의 및 기대감이 높음
- 모잠비크는 방대한 경작 가능한 토지자원(3,600만ha)을 보

유하고 있지만 현재 이용되는 농지는 약 12%로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임.

- 수도 마푸토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물류 항구가 마푸토항을 포함하여 3곳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어 물류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농업용수가 풍부하지만 대부분 영세 소농으로 농작업은 삽, 쟁이, 정글칼 등을 이용한 수작업이며, 주거환경 등은 열악한 상황임
- 협력사업 추진시 경작이 가능한 국유지를 선정하여 재배가 적합한 작목 선정, 시범포 운영, 저장·가공 시설 운영 등의 산업화가 가능한 시범단지 조성이 이루어져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식량안보 및 해외식량자원확보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○ 모잠비크와의 농업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전문가의 작업장 및 거주 문제, 자재통관 등 제반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의 필요

V

향후 조치계획

- 농식품부와 사업추진 여부 협의('10.8월 말~9월 초)
- 추진 결정 후 사전조사 실시('10.9월 말)
- 모잠비크 농업부 vs 농경연 ROD체결('10.10월 초)

- 협력사업 시행기관 선정('10.10말)
- 사업시행('10.11월 초)
- 한-모잠비크 농업협력 약정서 체결 검토

참고자료 1

출장 일정

일자별	세 부 일 정	비고
8.9-8.10	○ 출국 (인천 19:45)→ 홍콩 → 요하네스버그 → 마푸토(8.10, 10:50)	
8.10	○ 조사단 내부회의 및 일정 확인	○ 사업설명, 일정 조정
8.11	○ 농업부 기술보급 국장 면담 ○ 농업부 국제협력 국장 면담	○ 기술보급체계, 국제협력절차 및 기타 관련사항
8.12	○ 외교부 아시아,오세아니아 국장 면담 ○ Chissano Foundation 방문 면담	○ 국제협력사업 진행 절차, 외교부 공식 절차 및 역할 등
8.13	○ KDS 운영 시범포 방문 및 관계자 면담	○ 재배작목, 기술훈련체계, 수확물, 공여 기자재, 상주 전문가 면담
8.14	○ 내부회의 및 출장 정리	
8.15~16	○ 귀국 (마푸토 11:50) → 요하네스버그 → 홍콩 → (인천 8.16, 21:10)	